



## 제2장 2005년 사업의 총괄적 평가

재단은 2005년 3월 최근 기금 수익 저하에 따른 한정된 지원재정 환경 속에서 보다 효율적인 문화행정을 구현하고자, 1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외부 자문을 통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단기 청사진인 「전망 2010」 발표를 통해 i)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의 이용후생(利用厚生) 촉진, ii) 문화예술의 사통팔달(四通八達) 구축, iii) 문화예술을 통한 법고창신(法古創新)의 가치구현을 중·단기 ‘재단 이념’으로 정하였다. 이와 같은 중·단기 미션을 통해 도출된 사업목표를 토대로 분야별 사업과제를 선정하여 i) 새 예술정책 연구개발 → ii)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iii) 본 사업 추진 → iv) 평가와 환류라는 선 순환적 과정을 통해 목표 중심적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재단 중·단기 발전계획의 첫 해라 할 수 있는 2005년 ‘사업목표’로는 ‘문화예술 창작 진흥’, ‘도민의 문화예술 향수 및 참여기회 확대’, ‘지역문화예술의 균형발전’, ‘국제문화 교류 활성화’, ‘경기도 정신문화의 계승과 창달’,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과 현대화 및 실용화’로 정하고, 2004년도의 면밀한 사업평가와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2005년 재단의 기본 정책방향을 ‘목표 중심적 사업지원’, ‘문화예술 실질 지원 확대’, ‘계층간·지역간 문화향수 균형지원 확대’, ‘지역주민과 호흡하는 지역 문화 공간 유도’, ‘다원적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 환류의 정착’으로 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실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첫째, ‘목표’ 중심적 사업 지원이다.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등의 기초 예술 창작 활성화는 재단 창작 진흥 목표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세부 사업이다. 이를 제대로 완수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재단 정기공모지원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했다. 이는 과거 기계적인 ‘장르’ 중심 지원에서 재단의 사업 ‘목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르 중심적인

지원은 침체에 빠른 문화예술계에 어느 정도 활로를 개척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으나 지나치게 장르 중심으로 편중됨으로 그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가 도민 전체의 문화적 삶과 연계되지 못하거나 심지어 장르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기계적인 균형에 머물렀던 폐단도 없지 않았다. 문화예술이 직접적으로 도민의 문화적 삶이나 경기도 전체의 문화 지수를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인과 도민이 서로 조응하고 상보하는 긍정적 위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재단은 그 지원방식을 ‘이용후생’의 관점에서 문화예술인과 도민의 창조적 만남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재단은 설립 직후부터 운영하여 오던 문화예술지원금 공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마련하여 2005년부터 실제 공모지원사업에 적용하였다. 그 핵심 내용으로는 2004년까지 ‘일반공모지원사업’과 ‘특별공모지원사업’으로 분류되어있던 정기공모사업의 지원영역을 재단의 문예진흥지원금 공모지원사업의 ‘목표’에 따라 ‘기초예술 창작·발표활동 지원’, ‘공공·실험 예술 활동 지원’ 등 총 10개의 목표 영역으로 다양화하였다. 또한 각 지원영역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예술인, 매개자, 향유자로 분류하여 특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장르 분류체계를 5개의 분야로 정비하고, 각 분야별 세부 장르를 문화예술계 현실에 비춰 개편하여 추진하였다.



2006년 문화예술진흥지원금 공모제도 개선 공청회

다만, 목표중심으로 개편된 후 시행한 2005년 정기공모지원사업은 첫 시행년도 탓인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제도변경에 대한 문화예술단체간 오해의 간극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 동안 관행적이고 연례적인 ‘협회’ 중심의 정기사업은 지원심사 결정에서 대폭적으로 제외되어 ‘협회’의 조직적 반발을 사기도 했고,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한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

다. 지원 신청결과 10개의 지원 영역간 지원신청 편차가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제도 시행과정에서 목표 중심으로 지원신청서를 접수·심사하게 됨에도 지원 목표별로 다양한 장르의 사업들이 신청되어 신청 장르에 따라 심사단도 각각 별도로 구성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견되었고, 다양한 지원이 지원목표별로 분산적으로 시행되어 결과적으로 ‘공연예술분야’의 편중이 심화되어 ‘무대공연 작품 제작 지원사업’, ‘소극장 활성화 사업’ 등 공연예술 관련 재단 기획지원사업과 차별성 없이 시행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재단은 이와 같은 시행 첫해의 드러난 지역과 분야별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6년도에는 목표 지원 분야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목표’ 중심의 정기공모지원사업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문화예술 간접지원 확대를 통한 실질적 예술창작기반 조성이다. 그 동안 공연, 전시회, 책자 발간 등 1회성 ‘사업’ 중심의 ‘직접’ 지원사업은 열악한 기초예술 진영의 규칙적인 재생산 구조는 충족될지 모르지만, 이러한 직접지원이 결국엔 예술단체의 자생성을 향상시켜 기초예술의 확대 재생산 구조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비단 재단 기금 사업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인정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중앙단위 문예진흥기금 등의 공적기금이 과연 문화예술단체의 자생성과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독(毒)’인가 ‘약(藥)’인가 라는 극단적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반성 하에 현재 중앙단위 문화예술 정책은 2004년에 발표한 「새 예술정책」의 기반위해 「미술은행(Art Bank)」제도, 「문학회생프로그램」등 일련의 실질적 예술창작 기반조성을 위한 간접지원 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 재단도 이미 2004년부터 예술인의 창작 공간 확보와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인 창작촌 프로젝트」사업과 점차 자생적 기반을 상실하고 있는 ‘미술’, ‘문학’ 장르의 활성화를 위해 도내 미술평론가와 유망 미술작가의 발굴과 조명을 위한 「경기지역 미술 흐름전」, 경기도 문학창작 환경 연구를 통한 새로운 문학지원정책 모색과 일반인의 생활속의 글쓰기 장려를 위한 「경기문학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재단 부설 전문문화대학에서는 문화기반시설과 문화기획자를 대상으로 한 ‘매개자’ 교육을 통해 문화예술 체험과 교육 기반을 조성하는 등 실질적인 예술창작 여건을 조성하고 기초예술 진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새로운 정책 시도를 펼쳤다.

재단 「문화예술인 창작촌 프로젝트」는 2년간에 걸친 도내 창작촌 활성화 사업을 통해 기존 예술인 집성촌과는 상이한 지역 기반형 창작공간(스튜디오)의 활성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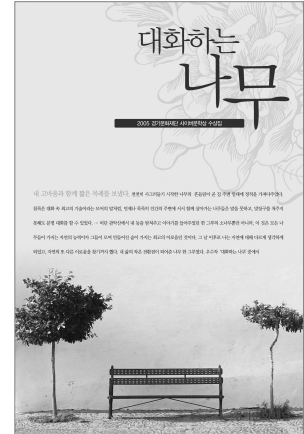
2005 문화예술촌 포럼



경기지역미술흐름전 - GRAF 2005

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공기관의 미술품 구입과 활용 등 2005년초 중앙단위 「미술은행(Art Bank)」의 주요 사업개념을 제공한 바 있는 2004년「기전 아트페어(Arts Fair)」는 재단이 미술작품을 콜렉션하는 문체와 공공기관으로서 미술 시장에 개입하는 문제가 혼재되었던 점을 개선하여 2005년도에는 「경기지역미술흐름전」으로 명칭을 달리하여 경기도의 유망한 작가들을 주목하고 미술평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방향을 바꾸어 추진하였다. 2005년「경기문화 활성화사업」은 문학 진흥 활성화사업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기초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문학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문학관」 활성화와 연구를 통한 경기도 문학지원사업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사업방향을 집중하였다. 이 밖에 문화예술 체험과 교육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전문화대학의 문화예술 ‘매개자’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 교사 연수 및 워크숍, 문화예술 교육 매뉴얼 제작과 보급 등을 통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인적, 물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험공유와 의사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문화예술인 창작촌 프로젝트」는 최소한으로 기능할 수 있는 예술시장 기능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폐교 등 본원적으로 열악한 입지조건인 지역 기반형 창작공간의 활성화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경기지역미술흐름전」은 참여 작가의 작가론과 평론서인 ‘기전미술 2005’ 발간사업과 사업의 특성이 전혀 다른 전시 사업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전시사업의 성과가 미흡했다는 평가이다. 「경기문화 활성화사업」중 ‘2005년 사이버백일장’은 기대와 달리 공모 접수가 매우 저조하여 사업의 의미가 반감되었다. 이는 백일장 주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이 응모 욕구를 불러일으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5 사이버 백일장 수상작품집 『대화하는 나무』

셋째, 계층간, 지역간 문화향수 균형지원 확대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문화예술을 누릴 권리가 있다. 문화예술을 통해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윤택하게 할 자격이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내·외부적 요인으로 접촉기회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장애인, 노인, 외국인 노동자,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의 문화 접촉기회를 확대해가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낙후한 지역 등에 문화예술이 건강하고 자발적으로 연계하고 찾아 나서는 사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재단은 기존의 단순한 감상자에 머물렀던 수용자 층을 생산적 참여자로 전환하는, 이른바 문화생비자(Prosumer)로 재정립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하였다. 먼저, 계층간 문화향수 균형지원사업으로 2004년에 신설한 「장애인」예술활동 지원사업과 「청소년」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내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 문화체험과 교류 행사 지원, 경기북부지역 사회복지시설과 문화예술단체, 사회 소수자가 함께 만든 「더불어 사는 사회 문화제」등 도내 각계 문화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향수와 참여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또한 2005년에는 노숙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인문학 과정인 ‘클레멘트 코스’의 창시자인 미국의 ‘얼 쇼리스(Earl Shorris)’ 초청 국제세미나를 개최 하였고, 청소년 교정시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하였다.

특히, 2005년 「장애인」 예술활동 활성화 사업은 장애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에서 벗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예술치료, 예술가(매개자)의 예술교육, 또는 매개자 재교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장애와 예술의 접점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장애에 대한 차별을 차이의 시선으로 전





2005년 청소년 문화캠프



2005 더불어사는 사회문화제-소수자 문화예술 발표회 '비상'

환 시킬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높은 성과를 나타내었다. 2005년「더불어 사는 사회 문화제」는 사회복지단체에서도 문화제를 통해 소수자 문화예술 활동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소수자 전문예술인과 아마추어, 이주노동자 단체 등이 참여하고 문화를 매개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됨으로써 소수자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촉발되는 계기로 평가되었고, 주 관객이 소수자 관계자들이었던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향후에도 재단은 문화바우처제도, 문화자원 봉사제 등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장치 확대함으로써 우리 사회 문화적 소수자들이 겪게 되는 이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문화를 조성하여 참다운 공동체 문화, 생활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간 문화향수 균형지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경기북부지역의 특별지원사업과 기획사업으로 구현되었다. 주지하듯 경기도는 남서지역에 비해 북동지역의 문화예술 창작 발표 빈도와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접촉기회는 상대적으로 빈약하였다. 이와 관련 재단은 2002년부터 경기남부에 비해 저변이 취약한 경기북부지역의 문화예술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재단 공모지원사업과는 별도로 「경기북부지역 젊은 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고, 2003년부터 북부지역의 대표적 문화인물인 故천상병 시인의 문학세계를 재조명하기 위해 「천상병 예술제」를 개최하였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의 가족단위 문화수요 개발과 차세대 문화예술 주체 육성을 위해 가족단위 문화체험이 가능한 북부지역 문화공간과 운영주체를 발굴하여 운영하는 「북부지역 가족단위 문화체험 개발 및 운영사업」과 「북부지역 청소년 문

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을 2005년에 신설하였다.

특히, 제2회를 맞은 「천상병 예술제」는 천상병 시인의 삶을 극화한 연극 ‘소풍’이 2005년 서울연극제에서 작품상 등 주요 부문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내었고, 타 지역에서 지역의 인적 자산을 발굴하여 특성 있는 예술제로 육성시킨 전형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5년에 첫 시행한 「가족단위 문화체험 개발 및 운영사업」은 지역과 공간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심화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이끌어내어 과거 열악한 지역 내 문화공간을 통해 가족단위 문화예술 체험교육 프로그램, 교사 양성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새 전형을 창출할 것으로 평가된다.



제2회 천상병예술제 - 연극 ‘소풍’

넷째, 지역주민과 호흡하는 지역 문화 공간 유도이다. 경기도 각 지역에는 문화예술기반 공간의 연간 운영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소극장 과 운영프로그램과 지속적인 관리 부족으로 관객의 발길이 끊어진지 오래된 사립 박물관, 미술관 또한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지역에 위치하면서도 그 지역의 관객 기반을 갖지 못한 문화기반 시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재단은 문화예술인들이 지역 문화기반시설이 지역 관객이나 공간 사용 주체의 기반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선구적인 경험과 후발의 모색이 상호 소통하고 보다 안정적이며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간 운영의 노하우를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5년 재단은 도내 「소극장」등 지역 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테마 「박물관/미술관」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지원사업, 「도서관」 문화서비스 기획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 그 동안 정기 1회성 사업 지원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지역문화공간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

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중심으로 지원 축을 이동하였고, 기전문화대학에서는 이러한 도내 공공문화공간의 기획운영 프로그램을 지역협력단체와 공동 연구하여 보급하고 있다.

다만, 2005년 「소극장 등 지역 문화공간 활성화」사업은 공모에 신청한 사업이 문화공간 활성화에 취지보다는 단순 공연성격이 대부분이었고, 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의 목표는 향유자의 인식제고를 통한 공간인지도 확대가 중요한 요소인데 대부분의 사업이 관객 확보에 실패하여 사업취지가 퇴색되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2006년부터는 이러한 반성을 토대로 ‘소극장’ 사업 공모제도를 탈피하여 소규모 공간에 적합한 기동성 있는 작품과 예술주체를 발굴하여 이를 통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관객 흡입력 있는 작품의 프로그래밍 기법을 개발해, 선정된 지역문화공간과 기획자가 공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문기획자, 지역문화공간, 지역주민이 결합되는 지역 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이 되도록 할 것이다.



기전문화대학 도서관 문화서비스 기획을 위한 워크숍

마지막으로, 다원적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 환류의 정착이다. 여전히 일부 예술단체에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라는 ‘팔길이 원칙’을 단편적으로 이해하여 모니터링을 일종의 ‘간섭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나, 공공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의 결과를 검증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거나 그러한 오해는 모니터링 주체와 대상간의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의 과정 속에서 풀어야 할 것이다.

2005년 재단은 목표 중심으로 변경된 ‘정기공모지원사업’과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사업’ 등의 특성을 새로이 반영한 ‘시민 모니터링 그룹’과 ‘심층 모니터링 그룹’, ‘언론연계 모니터



링'을 운영하여 문화의 최종소비자가 되는 도민들이 다양하게 재단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에 참여하게 하고, 문예비평가에 의한 심화 모니터링과 언론기관과 연계한 취재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지면공개를 통해 지역문화예술 지원 평가에 있어 '생산적 참여'와 '다원적 평가' 체제 정착이라는 실례를 만들었다. 재단의 모니터링은 2004년 시범 운영, 2005년도의 본격적인 운영을 통하여 타 기관과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이렇듯 재단은 1997년 설립 이후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일반적인 문화예술 지원 배분 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과 정책개발을 통해 나름대로 지원사업의 내실화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도민 전체의 문화적 삶과 연계된 목표 중심적 사업 지원, 실질적 예술창작 여건기반 조성, 수동적 지원정책에서 적극적인 참여 예술정책 시도, 계층·지역 간 문화향수 불균형 해소 노력, 지역 주민과 호흡하는 지역문화공간 유도, 새로운 창작방식의 반영과 다원적이고 객관적인 모니터링이라는 문화예술정책의 당면과제의 연구개발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수 없는 주민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확대를 위한 다양한 기획과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비록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구체적 실행에 옮겼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